

낙천...무소속 출마 여야 공천 '후폭풍'

중량급 인사들 탈당 후 연대 땀 총선 변수될 듯

더민주, 재심신청·탈당 잇따라
 국민의당, 탈락자들 집단 반발
 새누리, 유승민 탈락 땀 대풍금

여야 4·13 총선 후보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야 중량급 인사들의 낙천 후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데다 탈당한 특정 계파 인사들이 연대 등으로 집단 반발할 경우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6선 중진 이해찬 의원 등의 낙천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잠시 제 영혼 같은 더민주를 떠나려 한다.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친노계에서도 이 의원의 낙천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천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지도부는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에 후보를 공천, 맞불을 놓기로 했다.

같은 날 공천 배제된 정호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와 저를 지지해준 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더민주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 입당이 유력해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 탈당자가 없을 경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역시 컷오프된 5선의 이미경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재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재심에서 기각된 최규성·정정래 의원 등도 거취를 고심 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재심결과에 따라 탈

당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당의 공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의원들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 을)은 오는 17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최종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아직 무소속 출마 부분 등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또 경선예조차 오르지 못한 김명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공천심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탈락을 깨닫기 받아들인다"면서도 "무소속 출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며칠 전부터 컷오프를 예상하고 '안철수 대표 측의 불공정 공천 심사'라고 주장해왔던 김영립·홍인화 예비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 15일 오전까지 공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현역 의원은 총 17명이다.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공천 배제(컷오프)된 김태환 의원은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낙천 통보를 받은 3선의 강길부·주호영·서상기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유력 검토 중이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의 독선과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이번 공천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였다.

이보다 더욱 폭발성이 큰 공천 심사 대상은 유승민·이재오·황우여·진영 의원이다. 만약 유 의원 등이 조만간 발표될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비박(비박근혜)계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총선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세돌 '아름다운 투혼'

'세기의 대국' 인공지능 알파고에 최종전 석패...1승 4패

"질 수도 있다. 바둑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게 아니므로 바둑의 가치는 계속될 것이다." <관련기사 2·7면>

신안 비금도 출신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대국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피를 말리는 '세기의 대국'에서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투혼과 도전정신의 극치를 선보였다.

'인류 대표' 이세돌(33) 9단이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5국에서 알

파고와 5시간여 동안 280수까지 가는 대혈투를 벌였으나 미세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 만약 이세돌 9단이 끝까지 계가했다면 중국 규정에 따라 1집 반 정도 패하는 차이였다. 이세돌은 인간 최고수로서 알파고의 도전을 받아들였으나, 최종 전적 1승 4패로 대국을 마감했다. 이세돌은 이날 초반 착실한 실리작전을 펼쳐 인공지능보다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세돌이 상변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든 것이 유리했던 형세를 망쳤다. 특히 타게 과정에서 79수로 우측으로 뻗지 않고 안전하게 살겠다며 안형을 만든



'고마' 이세돌(13·맨 오른쪽)이 지난 1995년 신안군 비금면 자신의 집에서 형인 이상훈 9단과 대국하고 있다. 이 9단의 아버지 이수오(98년 작)와 둘째 형 차돌씨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기원 제공>

것이 이세돌답지 않은 큰 실수였다. 한편,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는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시상식에서 알파고에

명예 9단을 수여했다. 한국기원이 아마추어 명예 단장이 아닌 프로 명예 단장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pboxer@kwangju.co.kr



목련꽃 그늘 아래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등 봄 날씨를 보인 15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목련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7월 본격 추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7월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관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마련해 오는 7월께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

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민관위는 활동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평가분야, 배점기준 등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관위의 주된 역할은 시민공감대 형성과 공모지침 마련이다. 광주시는 앞서 용역과 전담팀 조연을 반

광주시, 민관위 구성·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마련

아 숙박시설 축소, 상가시설 확대, 민간개발방식(민자유치)을 주 내용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개발방향은 광주시가 애초에 밝힌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시 재정부담 최소화 등 개발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사업추진에 방점을 찍다보니 민자

유치에 유리한 상가시설 면적을 대폭 늘리게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총선 더민주 경선 격전지 점검 ▶ 5면
- 軍에서도 도념은 5·18 왜곡 ▶ 6면
- 문화자산-작가가 인정현·나주 ▶ 18면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WORLD ECO-FRIENDLY DESIGN EXHIBITION, KOREA

2016. 5. 5~5. 29 25일간

전남 농업기술원, 빛가람혁신도시 일원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

뮤지컬 '하늘정원'

버스킹, 거리공연

학술행사, 토론회

7개의 전시관

바로로, 디동대유치원

5월의 피크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